

<기관탐방>

근래의 다양한 대안을 찾으려 애쓰는 노력들은 더 이상 교육이 독자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며, 복잡다양한 현실 생활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걸친 유기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 현장과 교육의 연계를 넘어 살아있는 교육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탐방은 서울보건대학의 다양한 변화를 통해 현재 우리 나라 교육의 일례를 바라볼 수 있었다. 전공 수업과 철저한 실습을 통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특성학과를 통해 다양한 시도와 학문적 정립,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일련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서울보건대학

1. 탐방에 앞서

철저한 실습 위주의 교육만이 산업사회에 있어서 우수 인력을 개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규 교육이 지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 - 신입사원에게 다시 직업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는 등 자꾸만 반복되는 기존 노동시장의 직업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줄이는 방법은 살아있는 교육을 만드는 것이다. 즉, 일련의 교육활동은 현실의 제반 조건 위에서 적극적이면서 활용 가능한 능동태의 행동이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정규 과정에서 보이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근래의 다양한 대안을 찾으려 애쓰는 노력들은 더 이상 교육이 독자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며, 복잡다양한 현실 생활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걸친 유기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 현장과 교육의 연계를 넘어 살아있는 교육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탐방은 그러한 의미에서 실제적인 현장 교육을 통해 산학 연계교육의 범례를 만들고 있는 서울보건대학을 찾았다.

2. 이제 전공의 시대

21세기의 교육은 이론과 실습, 전공과 현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울보건대학은 중소기업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체에 다양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술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체에 교수와 학생을 직접 파견하여 현장실습을 겸한 실제적인 학과 교육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러한 교육활동은 “전공분야를 안다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다 …… 새 시대를 요구하는 창의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을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는 박준영 학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산학협동과 현장경영 및 기술 애로 타개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문희주 부학장의 학교 발전 계획으로 압축될 수 있다.

그에 따라 학내의 다양한 동아리와 부설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학내의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과 산업체에 많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서울보건대학의 학과는 크게 보건계열과 미래산업 관련 학과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성화된 학과는 주로 보건계열에 많은 편이다. 이는 서울보건대학의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사회 실현’이라는 이념과도 많은 관련이 있다. ‘응급구조과’, ‘장례지도과’, ‘유통과학과’, ‘병원경영과’, ‘안경광학과’ 등 주로 복지 관련 학과들이 많다.

그중 가장 이색적인 학과로는 국내 최초로 개설된 ‘장례지도과’를 들 수 있다. 이 학과의 경우, 장례 예절과 보건위생 교육 등을 실시해 질병의 감염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병원 장례식장의 시신관리에서 처리까지는 물론, 전염병 확산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으며, 오랫동안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던 장례문화를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정립해 나가고 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장례 관련 학과의 개설을 두고, 주위 사람들의 선입견을 넘어 과연 장례 문화가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박준영 학장의 확신과 설득으로 현재 우리 나라 장례 문화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병원경영과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계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하여 산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무시험 서류전형으로 입학시켜 정규 학생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교육하여 일반 학생과 동등하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업체에게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근로자들의 기술능력 신장과 생산성 향상, 사원의 재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인원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위탁생에게는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면서 전문학사 및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기 발전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3. 교육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지난해 1월 서울보건대학은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을 개설하였다. 이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3월에 개강하는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기 취득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나머지 학점을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직까지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지 않은 다른 교육기관의 평생교육원의 선례를 토대로 서울보건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지역사회에 보다 밀접하게 접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대학과 다른 점은 그 대상이 졸업생을 포괄하는 지역사회 주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졸업생에게는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에서 미처 배우지 못한 특성화 과정을 이수할 수 있어, 다른 전문대학의 졸업생들이 이수한 교육과정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수경 평생교육원장은 “어차피 다른 전문대학에서도 그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특정한 대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 평생교육원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산업체에 취직한 졸업생들이 실무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자신의 진로에 있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전문대학 교육과정에 연계되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나 졸업생의 입장에서든 많은 이익이 되리라 생각된다”고 설명하고, 인근 도시 100만 인구

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려고 구상중이라고 했다.

서울보건대의 평생교육원 역사는 짧지만, 사실 1990년 여성교수모임의 다양한 외부 교육활동과 봉사활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지금의 평생교육원에 이르기까지 열린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을 배울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확대 및 환원하는 통로를 개설한 셈이다. 한편,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졸업이 중국 교육과정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울보건대만의 강화된 현장인력을 배출해 내고 있다. 즉, 단지 졸업생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교육의 대상으로 보고 필요한 교육과정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보건대학은 교내 다양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또한 충남 둔산병원 신축 공사와 노원병원 별관 증축 공사를 통해 명실공히 보건계열의 전문대학으로서의 시설과 실습 시설, 나아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해 학생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모든 것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변화는 즉, 삶의 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교육은 교육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위해서도 복무해야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2세기가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